

신들린 선방 ‘승부차기 4전승’ 48년 만에 추계대학축구 우승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국제】 축구부가 48년 만에 추계 대학축구연맹전 정상에 섰다. 골키퍼 이준희(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가 네 번의 승부차기에서 총 10개의 슈트를 막아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우석대와와의 예선 첫 경기를 3-1 승리로 기분 좋게 시작한 축구부는, 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 조선이공대에 6-1 대승을 거두며 기세를 이어갔다. 연이은 다득점으로 예선을 통과하고 만난 22강 상대는 강서대였다. 이 경기 막판 승부차기에서 골키퍼 이준희 선수가 상대 슈팅을 3개 연속으로 막아내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승부차기 끝에 진출한 16강 상대는 지난달 U-리그에서 0-7이라는 대패를 안긴 울산대였다. 양 팀의 골문은 90분 내내 열리지 않았고, 22강과 마찬가지로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이번에도 이준희 골키퍼는 상대 1, 3번 키커의 슈트를 막은 뒤 포효했다. 우리학교는 모든 키커가 침착하게 슈트를 성공시켜 8강에 진출했다.

영남대와와의 8강 역시 승부차기로 결정됐다. 대회 세 번째 승부차기였다. 이날도 이준희 골키퍼가 놀라운



지난 18일, 축구부가 광운대를 승부차기로 꺾고 48년 만에 추계대학축구연맹전을 우승했다.

(사진=한국대학축구연맹 제공)

예측 능력으로 세 개의 슈트를 막아내며 승리했다. 4강에서 만난 상지대에게는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전반 21분에 선제 실점했지만 27분 김태욱(스포츠지도학 2022)의 동점골, 후반 21분 김민준(스포츠지도학 2022)의 역전 골로 승리했다.

그렇게 결승에서 만난 광운대와도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대회 네 번째 승부차기 주인공 역시 이준희

골키퍼였다. 두 차례 선방에 힘입어 승부차기를 4-2로 승리하고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팀의 우승으로 개인상도 집안 잔치였다. 주장 이호연(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가 ‘이회택 최우수 선수상’, 원백 차승재(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가 ‘홍명보 수비상’, 골키퍼 이준희 선수가 ‘김병지 골키퍼상’을 받았고, 팀을 우승까지 이끈

김광진 감독, 박상진 코치, 박우정 코치가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주장 이호연 선수는 “날씨도 덥고 승부차기도 네 번이나 하는 어려운 대회였지만, 다들 하나로 뭉쳐서 이겨서 너무 기쁘다”는 우승 소감을 남겼다. 또한 “내가 크게 잘한 것 없이 같이 잘해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

는 최우수 선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감독님께서 ‘한 경기 올라갈 때마다 나중에 가면 이게 다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텐데, 더 좋게 기억할 수 있게 해보자’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우승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는 역시 골키퍼 이준희 선수였다. 토너먼트 다섯 경기 중 네 경기가 승부차기였고, 모두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 전까지 우리학교는 ‘승부차기 징크스’가 있다고 할 정도로 승부차기에 약했기 때문에 더 큰 반전이었다.

영웅이 된 이준희 골키퍼는 “계속 승부차기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실점 경기가 많았기 때문이고, 동기인 24학번 수비진 덕분에 슈팅 허용이 거의 없었다”며 자신보다 동료들을 치켜세웠다. 신들린 승부차기 선방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도왔다”며 “간절하게 준비했고, 운도 많이 따랐다”고 대답했다.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만에 우리 학교에 영광을 안긴 선수들은 감독에게 넉넉한 휴가를 선물 받았다. 주장 이호연 선수는 웃으며 “입학 이후 이렇게 긴 휴가를 받은 건 처음”이라며, “U-리그 4권역 우승을 한 이후 왕중왕전에 나가 3관왕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6강에서 중앙대 만나 석패,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탈락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국제】 농구부가 ‘제41회 MBC배 전국대학농구 상주대회’에서 중앙대와와의 16일 6강 경기에서 패배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우리학교는 B조에 배정받아 상명대, 연세대, 명지대를 상대로 예선을 치렀다. 지난 8일 상명대와와의 예선 첫 경기를 81-63으로 승리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10일 연세대와의 경기는 64-80으로 패배했지만, 12일 명지대와와의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64-61로 승리해 조 2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는 6개 팀이 올라왔고, 2위로 진출한 우리학교는 4강에 오르기 위해 준준결승을 치러야 했다. 중앙대를 상대로 초반에 9-27까지 끌려갔던 우리학교는 2쿼터를 18-10으로 제압하며 승부의 끈을 놓지 않았다. 후반에도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4쿼터 중반 64-64 동점을

맞추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막판에 상대의 득점이 연이어 터지면서 15점 차로 졌다. 이후 중앙대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현국 감독과 팀의 주축점원인 포워드 배현식(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가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대학경기 국가대표팀에 차출되면서 함께 하지 못했다. 김 감독의 빈자리는 양은성 코치가 채웠고, 주장 우상현(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가 2경기에서 20득점을 넘기는 등 배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분투했다.

우 선수는 4경기 동안 39.3%의 성공률로 3점슛 11개를 넣는 등 득점 잠재력을 드러냈다. 우 선수는 “대회 전에 득점을 위한 연습을 많이 했는데, 기록지를 보고 뿌듯했다”고 밝혔다. 6강에서 우승팀 중앙대와와의 경기에서 “점수가 벌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동점까지 끌고 가는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지대전 결승 3점 슛과 8어시스트, 연세대전 8어시스트, 중앙대전 21득점으로 활약했던 김서원(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좋은 선수들과 붙어보면서 자극이 많이 됐다”며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도 가드로서 다른 선수들이 편하게 득점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농구부가 중앙대에 68-83으로 패배하며 MBC배 전국대회 6강에서 탈락했다.

(사진=농구부 프런트 KBF 제공)

트, 연세대전 8어시스트, 중앙대전 21득점으로 활약했던 김서원(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좋은 선수들과 붙어보면서 자극이 많이 됐다”며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도 가드로서 다른 선수들이 편하게 득점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은성 코치는 “나로 인해 팀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많이 공부했다”며 “트레이너들과 상의하면서 단기간에 맞는 선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대전이 어려웠지만 끝까지 쫓아간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 쳐 주고 싶고, 농구 선수로서 성장하는 경기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농구부의 다음 일정은 9월 2일, 선승관에서 열리는 U-리그 중앙대전이다. 오는 중앙대와와의 경기는 플레오프에서의 유리한 순위 확보를 위해 중요한 경기다. 더불어 지난 대회 6강 탈락을 설욕할 기회다. 올해가 대학에서의 마지막인 우 선수는 “남은 목표는 U-리그에서 결승까지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